

## 바퀴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동거기, 바퀴

역겹의 세월 속에서 바퀴는 '징그럽다', '더럽다'는 이유로 늘 인간의 혐오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그 '혐오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에 의한 오랜 타성은 아닐까?

다큐프라임 <바퀴>는 인류보다 먼저 지구에 출현해 진화를 거듭해 온 바퀴의 숨겨져 있던

생태 비밀과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유쾌한 변론을 시작한다.

‘핵전쟁이 일어나 인류가 멸망해도 결코 멸종하지 않고 끈덕지게 버틸 것’이라 알고 있는 바퀴. 성공적인 진화로 8억 5,0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해 온 바퀴는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인간과의 동기를 이어왔다. 바퀴는 과연 지구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해충인가?

전작 <마리온 이야기> 제작 이전부터 곤충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문동현 PD의 눈에 바퀴는 인간들의 오해로 외면 받는 외로운 생명이었다. 그래서 다큐드라임 <바퀴>를 통해 자신들을 혐오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간과 어떻게 다를까하고 같은 타전에서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바퀴를 무대 앞으로 내세웠다. 바퀴를 위한 생생한 변신을 위해 기존 자연다큐멘터리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퀴 생태에 관한 과학적 사실에 바탕해, 드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한 색다른 다큐멘터리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다큐드라임 <바퀴>는 한 권의 영화책 보는 듯한 HD급 화질에 상상할 수 없는 영상으로 바퀴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우리가 손으로 내리친 바퀴가야 숨이쉬게 하려 할 때 때때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고속·미속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바퀴의 신비한 생태도 포착해냈다.

### 바퀴, 숨어야 사는 자

인간과 같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바퀴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음식검에서 일하는 남자와 아내의 일상, 그리고 그들의 동거하고 있는 바퀴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드라마로 담았다. 바퀴의 시선으로 바라 본 가래라 앵글을 통해 인간 삶의 모습이 그려진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퀴는 올해 4월 촬영 전부터 5주에 해충 방제연구소, 대학의 기생충학과 교실, 위생관측과 등에서 유충을 얻어서 직접 양육한 것이다.

남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바퀴가 거웃거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음식물 주변에 바퀴가 물려드는 것은 바로 인간과 같이 식탐을 가지고 있어서다. 귀요 아상의 음식을 먹는 바퀴는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는다. 이 때문에 생애의 반을 굶고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하지만 낮에는 쉽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루 내내 활동을 하는 인간과 달리 바퀴는 특정 시간대에 주로 활동한다. 냄새와 더덕이로 활동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 일광 조건을 감지해 해가 지고 3시간, 해 뜨기 1시간 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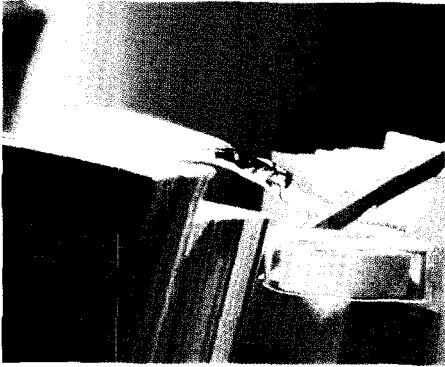
한다. 정보의 90%를 시각에 의존하는 인간들은 밤에 자도록 진화해 왔지만 어둠은 바퀴에게 가장 완벽한 은신처다. 밤이야말로 바퀴들의 시간의 쉼이다. 그 시간 동안 바퀴는 인간들의 먹다 남은 음식을 차운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너러워진’ 음식을 처리하는 ‘더러운’ 생명체로만 바퀴를 대한다. 바퀴는 ‘더럽다’는 인식도 인간이 바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다. 평소 정소를 세배 하지 않는 아내의 습관이 바퀴를 키운다. 바퀴가 질병을 옮기고 다니다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더러운 동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바퀴는 평소에 늘 몸단장에 신경 쓰는 매우 청결한 곤충이다.

어느 날 세 집으로 이사할 가기 위한 부엌 공간을 가질 아내가 빙글 돌러 온 손님을 맞이한다. 안내 중에 개관함에 악티트를 마련할 수 백마리의 바퀴 때가 발견되고, 아내의 눈 앞에서 바퀴들이 솟구쳐 날아드는데... 인간과의 아슬아슬한 동거 속에서도 성공적인 번식을 이어가던 바퀴들은 방제업체의 유독가스에 의해 멸종의 위기를 맞이한다. 방제업체 후 깔끔하게 사라진 바퀴의 흔적, 이제 영원히 무대에서 사라진 것일까? 자연의 법칙 속에서 재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바퀴의 그 간절한 생명 시작과 마감이 1부에서 공개된다.

### 인간의 동굴, 바퀴의 도시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며 강인한 생명력을 과시해 온 바퀴의 비밀은 무엇일까? 2부 ‘인간의 동굴, 바퀴의 도시’에서는 단순히 혐오 해충으로만 알고





바퀴에게 더듬어는 생존의 가장 큰 힘이다. 냄새를 맡고 그 속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함유량을 알아낼 수 있는 놀라운 감지능력을 가졌다.



바퀴는 온 몸이 납작하게 눌러는 압박을 즐기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 문, 잡서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4종의 야생바퀴가 사육한다. 그중 유일한 국내고유종이 감돗바퀴다.

있는 바퀴의 교미, 산산, 부화, 탈피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퀴의 생태를 깊이 있게 알아본다.

제작진은 북히 숨어살기, 도망치기로 특화된 바퀴의 능력에 주목했다. 바퀴의 복숨은 더듬어 하나에 달렸다. 바퀴에게 더듬어는 어둠 속에서도 진동을 느끼는 눈이 자기가 된다. 또 맛, 냄새, 습도 등 미세한 공기의 변화를 감지해 사물을 파악한다. 짝짓기를 할 때는 상대의 더듬어를 자극한다.

제작진은 선자현미경 단위의 마이크로 촬영을 통해 바퀴 다리에 달린 1mm도 안 되는 미모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담아냈다. 또 비로 찾기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바퀴의 하중, 기억능력도 알아본다. 동물 중에 지능이 뛰어난 문어는 인간으로 치면 두세 살 정도다. 바퀴의 수준도 그 정도로 알려져 있다는데... 과연 바퀴의 지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몰랐던 바퀴에 대한 비밀은 여섯만여 가지다. 바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에서만 살지 않는다. 전체 바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야생 바퀴이며 우리가 아는 바퀴는 아주 소수일 뿐이다. 그중 제작진은 국내 야생 고유종인 감돗바퀴의 생태를 소개하며 야생바퀴가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의미를 짚어준다. 썩고 죽은 나무만 갇아먹고 사는 감돗바퀴는 자연계의 분해자다. 나무는 셀룰로오스라는 소화하기 힘든 요소를

### 3억 5,000년 동안 살아남은, 바퀴 씨의 생존법칙

1. 바퀴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것? **물 청소!** 바퀴는 하루의 4분의 1만 움직이며, 반경 이상씩 미터를 벗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 동안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오로지 물 청소뿐이다. 어둠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먹이를 찾아내는 일을 더듬어에 의존하기에 바퀴에게 물 청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바퀴는 결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바퀴의 생존비밀 중 하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퀴는 제 몸에서 나온 배설물은 물론 동료의 사체도 먹어 치운다. 흰 마리의 발각이 우리 전체의 말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엄격한 생존의 법칙이자 인간과의 동거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3. 떠오르는 터전인 TV, 컴퓨터! 바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 외에도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 안에서 산다. 따뜻하고, 어둡고 숨기 좋은 그곳이 바퀴에게 좋은 생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가전제품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바퀴〉의 문동현 PD

가지고 있어 일반 공중은 잘 먹지 않는다. 하지만 갑옷바퀴는 상속에 헬륨로오소를 분해하는 공생균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맞게 진화했다. 이를 후대에 전하는 독특한 방법도 공개된다.

이어 배일에 쏘여있던 바퀴의 사상도 소개된다. 바퀴가 보여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짝을 찾을 확률을 높기 때문이다. 애써 짝을 찾아도 다른 수컷들이 공격기개 방해하거나 심지어 자기 배를 뜯어먹는 뻔뻔한 녀석도 있다. 방해자들을 피해 도망치듯 아부어지는 바퀴의 꼬미, 그를 통해 알 것 같지만 1년에 10일 미라까지 만든 식한다.

## 바퀴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동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는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지만 자연계로 돌아간 바퀴는 다른 동물들의 먹이원이 되기도 한다. 특별한 공격수단이 없어 노획와 숨기 능력이 발달한 바퀴에게 먹이와 쉼처는 강력한 천적이다. 바퀴는 인간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곤충이다. 실험 대상이나 의학 약품의 원료, 심지어는 연기와 동물의 먹이. 애완동물로도 각광받는다.

다른 동물들이 야생을 버리고 인간에 길들여질 때도 바퀴는 야생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도시라는 거대한 공간에 숨어 살았다. 생태계 파괴로 늘어난 천적을 피해 바퀴가 도시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다. 인간과의 동거생활에는 풍부한 먹이의 보고라는 이점 뒤에 늘 노숙과 부상, 그리고 폐죽음의 함정이 놓여있다. 그러나 그리고 문헌에다 등장한 큰 인간이라는 천적은 충분히 상대할 만하고 바퀴의 적응이 이미 끝났다.

이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난 그러고보니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키르키라의 소설 〈변신〉. 생명의 인간이 흡수한 벌레가 되어 바리본 인간세상은 방목하기만 하다. 이처럼 곤충, 바퀴의 삶을 우리가 다양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생명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바퀴의 이야기〉에서 동물들의 생태 이야기에 애절한 감동을 얻은 유학을 신사한 이치용 감독이 이번에도 작업을 맡아 바퀴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서 바퀴의 이야기를 신재술 다큐프라임 〈바퀴〉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

**Q1 바퀴를 소재로 삼은 이유는?** 재미, 정수 알벌 등 곤충에 대한 상태에 관심이 많았다. 바퀴는 혐오스러운 동물로 알려졌지만 이상하게 내게는 호기심으로 둘러싸인 흥미로운 캐릭터였다. 그럼에도 나와 사람들은 바퀴에 대해 모르는 점이 너무 많고, 방제와 박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워낙 빠르고 숨어서는 동물이라 접근이 어려워 영우가 안 낫지만 이번에 도전하게 되었다.

**Q2 기존의 다큐멘터리에서는 볼 수 없는 구성의 특징이 있다면?** 1부는 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연결고리에 바퀴를 담았다. 바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곤충이기에 그들의 생태만을 보여 주는 것보다 사람과의 생활을 엿어서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2부에서는 바퀴의 기본적인 생태 등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야생바퀴, 생태계에서의 바퀴의 역할과 천적 등 바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음악과 가사를 넣은 뮤직애니메이션이라는 색다른 시도도 해보았다.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요소가 디소 이색할 수도 있지만 실사만으로는 전하기 힘든 부분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큐의 언어가 아닌 독특하고 실험적인 다큐가 될 것이다.

**Q3 바퀴 촬영을 위해 영상 부분에 있어서 준비한 것이 많았다고? 1부에서 상상력이 가미되어 바퀴의 시선에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미가 있다. 만화나 영화 같은 영상도, 많은데, 배경도 모두 실사로 촬영한 후 합성 편집한 것이다. 움직임이 빠른 바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고속촬영을 시도했다. 바퀴의 미세한 움직임, 걸거나 달릴 때의 모습, 도시 이경을 배경으로 미국바퀴의 날개짓 등 영상미가 돋보인다. 또 HD 고속촬영 전용 카메라로 촬영해 화면에 풍성한 질감을 살렸다.**

**Q4 바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퀴에 대해 알고 있는 과장된 편견들에 대해 정확히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조금 시꺼맣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한 생명체의 존재 의미를 외면하고, 해충으로 각인시킨 것은 인간의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다. 모든 자연다큐멘터리의 공통적 메시지일텐데 인간들의 오만함, 궁극적으로 지구에서 자신과 다른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바퀴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점으로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보면 된다. 바퀴도 인간과 대등한 영혼이며 공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전하고 싶다.

**Q5 촬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정소를 제외할 때 힘들었다. 프로그램 아꼐울 대시 가정집이나 음식점에서 모두 거절당했다. 그리고 차타의 새 배 속도, 사탕으로 치면 100m를 1초에 달리는 속도인 바퀴의 빠른 움직임, 작은 크기 때문에 촬영하기 무척 힘들었다. 바퀴가 연못을 지나갈 때도 물 아래에서 촬영하는 등 구도 하나하나가 제작진의 고민 끝에 만들어 낸 결과다. 번기봉에 빠지는 장면도 바퀴가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일반적인 자연다큐멘터리와 같이 대상을 관찰하면서 찍는 느낌이 아니어서 공을 많이 들였다.

문동현 PD는 1994년 EBS에 입사해 자연다큐멘터리 〈개미〉, 〈잠수알벌〉로 각각 '제14회 한국 PD대상' TV 작품상, '제29회 미담의 PD상'을 수상했다. 또 다큐프라임 〈마리온 이야기〉로 '2008년 EBS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